

고양시·암센터, 남북 보건의료 협력 '평화의료센터' 개소

(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고양시는 국립암센터와 남북 보건의료 협력을 통한 평화교류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한 '평화의료센터'를 10일 개소했다.



국립암센터

[연합뉴스TV 제공]

국립암센터 내에 문을 연 평화의료센터는 진료와 연구 기능을 함께 갖추고 남북 보건의료 협력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와 사업들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건강실태조사와 검진을 통해 북한 주민의 건강행태를 간접적으로 파악하고 다양한 진료 경험을 축적하기 위한 연구를 한다.

남북한 질병 언어 비교 연구를 통해 남북한 주민이 아플 때 호소하는 표현 방법과 질병에 대해 이해하는 차이를 비교 분석하는 연구도 맡는다.

센터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 의료지원을 추진하고, 보건의료 분야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평화의료포럼 개최도 계획하고 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보건의료 분야에서 국제 공조의 필요성이 높아졌고, 국립암센터가 추진 중인 우리나라 국민 데이터에 기반한 첨단 암 연구에 남북 간의 협력도 절실한 상황이다.

이은숙 국립암센터 원장은 "국립암센터와 고양시가 협력해 문을 연 평화의료센터는 보건의료 기반 평화협력의 교두보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은 "고양시와 암센터가 보건의료 기반 다양한 사업을 통해 남과 북이 평화공동체로 발전해 나가는데 지속해서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ns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06/10 14:01 송고

경기도, 효순·미선 평화공원 주변 안전시설 지원

평화공원조성위 요청 따라 지원 방침

이재강 평화부지사 13일 추모제 참석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오는 13일 양주시 광적면 효촌리에서 효순미선평화공원조성위원회가 주최하는 효순·미선 18주기 추모제와 평화공원 준공식에 참석한다.(경기도 제공)© 뉴스1

경기도가 미군장갑차 희생자 효순·미선양 18주기를 맞아 양주 효순미선평화공원 주변 환경정비시설을 지원 하는 등 추모사업에 힘을 보탠다.

경기도는 오는 13일 양주시 광적면 효촌리에서 효순미선평화공원조성위원회가 주최하는 효순·미선 18주기 추모제와 평화공원 준공식에 이재강 평화부지사가 참석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대해 이 평화부지사는 “100% 민간주도 행사인 추모제에 참석하는 것은 민간주도 추모사업의 의미를 높이 평가하고 경기도민의 억울한 희생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효순미선평화공원조성위원회가 시민기금으로 조성하는 효순미선평화공원은 지난해 13일 착공식을 진행했으며 1년 만에 완공된다.

사고현장인 양주시 광적면 효촌리에 367㎡ 규모로 조성되는 공원은 청소년을 위한 평화교육의 장으로 활용 될 예정이다.

조성위원회는 지난달 ‘이재명 지사께 드리는 글’을 통해 안전을 위해 평화공원 주변에 인도와 횡단보도, 신호 등, 계단 등을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경기도는 요청사항을 받아들이고, 평화공원의 접근성, 안전성 확보, 주변환경 개선, 청소년을 위한 평화 학습장 마련 등을 위해 조성위원회와 협의 중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가 효순·미선 추모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평등한 한미관계와 평화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경기도 차원의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효순이 미선이 사건’은 2002년 6월 13일 신효순·심미선 두 여중생이 인도가 없는 왕복 2차로를 건다 뒤에서 오던 미군장갑차에 치여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사건이다.

사고를 낸 미군병사들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의해 대한민국 재판이 아닌 미군재판을 받았으며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미군의 태도와 불평등한 SOFA협정에 분노한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와 항의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 집회를 시작으로 촛불집회가 대중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